

프린트회로 전체의 기술동향으로서는 다층화 경향이 강한 가운데, SMT(표면설장기술) 사양이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SMD의 극소형 칩화, 화인피치화가 진행됨에 따라 화인 패턴화, 나아가 새로운 다기능 드로우홀화 기술이 추진되어 관련된 표면처리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편, 프린트 회로업계에 있어서는 21세기에 걸쳐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경영자세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프린트회로 업계의 규모별 생산액에서는 금후 대기업에 의한 비율이 확실히 상승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중소기업은 특히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인 원인으로서는 기술의 고도화에 대응하는 기술력, 제조설비에 대한 투자력, 나아가 환경보전 등 설비투자내용 다발에의 대응력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

세계전자시장정보

대만의 정보산업 동향

1. 서론

대만의 다이나믹한 정보기기 산업은 혁신적이며 신속한 기업가 정신에 의해, 세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기에 이르러 마우스, 이미지 스캐너, 마더 보드, 모니타로 대표되는 「생산량·쉐어 세계 1위」라고 말해지는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끊임없이 하이테크를 추구하고 있는 정보산업계이지만, 세계적인 경제 저성장下에서도 소비자 Needs의 변화에 대응하는 마케팅, 제조전략의 再考시기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바이어와 End-User가 추구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대만 메이커가 어디까지 장래에 대비하고 있는지, 어떠한 Niches시장이 금후 형성될 것인지—가 세계 컴

퓨터 하드웨어 산업의 「작은 거인」인 대만이 풀어야만 하는 과제인 것이다.

2. 대만의 교역 동향

대만의 재정부 통계처는 3월분의 수출입 무역 개황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수출 총액은 74억 1,000만 \$(전년동월비 6.7% 증가), 수입총액은 65억 3,000만 \$(同 14.8% 증가)로 차액 8억 8,000만 \$의 무역수지 흑자로, 이것은 전년동기대비 30% 감소한 것이다.

'93년 1~3월의 수출총액 누계는 200억 7,000만 \$(同 13.3% 증가)로 13억 5,000만 \$의 出超(同 17.7% 감소)로 되었다.

3월의 주요 품목에 의한 무역구조를 보면, 수출에서는 공업제품이 71.1억 \$(전년동월대

비 7.6% 증가), 중화학제품이 37.7억 \$(同 14.9% 증가), 비중화학제품은 33억 3,000만 \$(同 0.4% 증가)이며 수입에서는 자본설비가 10억 3,000만 \$(同 20.9% 증가), 소비품은 8억 2,000만 \$(同 8.6% 증가)이었다.

1~3월에 있어서의 누계 무역구조를 보면, 수출에서는 공업제품이 192억 6,000만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 중화학제품이 103억 \$(同 14.2% 증가), 비중화학제품이 19억 6,000만 \$(同 2.6% 감소)이며, 자본설비가 30억 8,000만 \$(22.8% 증가), 소비품은 24억 3,000만 \$(同 17% 증가)이었다.

수출상대국은 3월 실적에서 보면, 미국이 26.9%(19억 9,000만 \$), 홍콩이 21.2%(15억 7,000만 \$), 구주가 16.5%(12억 2,000만 \$)의 순이며, 수입에서는 일본이 31.8%(20억 8,999만 \$), 미국이 19.7%(12억 9,000만 \$), 구주가 18.3%(11억 9,000만 \$)이다.

1~3월의 누계로 수출에서는 미국이 27.5%(55억 2,000만 \$), 홍콩이 19.9%(39억 8,000만 \$), 구주가 16.7%(33억 6,000만 \$)이었으며 수입에서는 일본이 29.6%(55억 4,000만 \$), 미국이 22.4%(41억 9,000만 \$), 구주가 17.7%(33억 2,000만 \$)를 기록하였다.

3월의 대비 出超는 7억 \$로 전년 同月比 2.5% 증가, 對홍콩 出超는 14억 2,000만 \$로 同 28.1% 증가, 對구주 出超는 3,000만 \$로, 同 91.3% 대폭 감소하였다.

또한 대일 入超는 12억 8,000만 \$로, 同 46.2%의 증가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3월은 수출입 모두 사상 2, 3위의 고수준, 4/4분기 기준으로는 1, 2월의 부진으로 적자폭을 크게 감소하였다.

3. 정보산업 관련 수출 동향

대만의 정부자료에서는 전자기기를 「기기」와 「부품」으로 大別하고 있는데, 수출액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용 부품, 통신관련

기기, 가정용 전자기기 등이다.

수출에서는 가정용, 정보처리기기, 반도체·IC관련 디스플레이/표시판 등이 증가하였다.

기기분야의 수출 중 정보처리 관련에서 신장한 것은 터미널(82% 증가), 칼라 모니터(33.4% 증가) 등이며 수입에서는 HDD(37% 증가), 아날로그, 하이브리드·데이터 처리장치(15% 증가)가 신장을 보였다.

전자부품의 수출에서는 퍼스널 컴퓨터·보드가 18% 신장한 외에, 반도체 관련의 다이오드(15% 증가), 트랜지스터(28% 증가), 디스플레이 관련의 CRT부품(246% 증가), 컴퓨터용 부품의 키보드(10% 증가), 기타 컴퓨터용 부품(43% 증가) 등의 신장이 눈에 띤다.

수출이 신장한 지역은 홍콩, 일본, 태국, 필리핀, 인도, 미국, 영국이며 거꾸로 감소한 나라는 싱가풀, 인도네시아, 한국, 프랑스, 스페인 등이다.

대만의 대일 수출비율은 '90년의 6.56%에서 '91년에는 6.29%로 하락하였는데, 작년에는 6.44%로 미미하나마 증가를 보였다. 한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율은 '90년의 45.97%, '91년의 46.24%, '92년에는 42.20% 이었다.

4. 정보기기산업의 발전 동향

대만의 정보기기산업(대만에서는 IT(Information Technology) 산업이라고 불림)은 '92년에는 15.7%의 성장을 이루어, 금액기준으로 79억 9,000만 \$에 달하였다.

금년에는 11.1%의 신장으로 88억 6,000만 \$이 예상되고 있는데, 작년 매출중 수출은 74억 7,000만 \$로 전체의 93%를 점하였다. 금년에는 10.7% 증가한 82억 7,000만 \$로 수출비율은 마찬가지로 93%가 될 전망이다.

제조분야에서 대만이 세계적으로 리드하고 있는 분야는 마우스, 이미지, 스캐너, 마더보드, 모니타가 있는데, '92년 마우스의 생산은

<102 page 계속>

마크제가 회원국들의 의견불일치와 생산자·소비자단체의 반목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EC집행위는 지난 80년대말 환경피해가 없는 제품생산을 요구하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이 거세지면서 EC차원의 환경마크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최소한 5가지의 환경마크를 도입, 7월부터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계획안에서 회원각국이 환경마크제 시행을 관장하는 국가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포르투칼 등 일부 회원국들이 조직정비 작업에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프랑스, 네덜란드가 EC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영국도 환경 마크제를 EC차원이 아니라 각국의 사정에 따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회원국들의 공동시행을 목표로 한 집행위의 당초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회원국간의 의견불일치와 함께 각국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첨예한 이해대립 또한 환경마크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집행위는 환경마크제 도입이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함께 생산자들의 환경보전기술개발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제품의 판

단기준 문제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8. 브라질, 關稅率 대폭 引下

브라질이 오는 7월 1일을 기해 관세 인하를 단행한다. 또 일부품목에 대한 수입금지도 해제한다.

브라질은 오는 7월 1일부터 수입관세율을 현재의 평균 17.1%에서 14.2%로 낮출 방침이다. 컴퓨터 등에 적용됐던 최고 수입관세율도 기존의 50%에서 40%로 낮아지게 된다.

품목별로는 VCR, 확성기, 전자 레인지, 완구, 쿠키, 정제약품 등은 기존의 40%에서 30%로,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은 40%에서 35%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믹서, 시계, 자전거, 초콜렛 등은 35%에서 20%로, 의류, 맥주, 농업용 트랙터, 기관차, 객차 등은 30%에서 20%로 낮아지며 이 밖에 가공육과 가공생선은 25%에서 20%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육류, 생선, 해산물, 연료유 등은 기존의 10%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며 가죽신발류와 분유, 버터, 과일통조림, 야채통조림, 모터류, 기계장비 등 역시 기존의 20% 관세율이 변경없이 적용된다.

<98page에 이어서>

1,2000만개로, 이것은 세계 전체생산의 80.4%에 필적하는 것이다. 이미지·스캐너는 69만 4,000대로 세계의 64.4%를 점한다.

마더보드는 596만개(세계 쉐어의 8%), 모니터는 1,110만대(同 47%)를 생산하였다.

금년의 대만 IT산업의 경향으로서 주목을

끌고 있는 10개의 상품군은 아래와 같다.

486/64바이트 데스크톱 PC, 코른 링 카드, TFT칼라 노트북 PC, 멀티미디어 업그레이드 키트, 팜톱 PC, 로컬 버스/486 CPU 마더보드, 15인치, 플래트 스퀘어 논 인터레스 모니터, 1200dpi 플래트 베드 스캐너 등이다.